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음 4월 12일) 제15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 위한 사업 축소했던 도교육청, 일부 도의원에

‘선심성’ 해외연수 ‘눈총’

의회 의원 3명·직원 2명
1750만원 경비 전액 지원

예산부족으로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들을 축소했던 전북도교육청이 일부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전액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스웨덴을 방문하는 '2016년 해외혁신교육 탐방연수'를 실시했다.

약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번 연수에 도교육청과 혁신학교 관련 교사(51명)와 도의회(5명) 등 총 56명이 참여했다.

도의회에서는 양용모 교육위원회위원장과 최인정 교육위원회부위원장, 현재 혁신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해숙 의원 등 3명과 2명의 직원이 동행했다.

1인당 경비는 350만원 내외로 모두 1,750만 원 가량이 소요됐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도교육청이 이들 3명의

원을 포함해 총 5명의 경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부족 등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축소해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해 2016년도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사업예산 삭감과 직원 해외연수비 증액, 기초학력 미달에 따른 학력신장 예산 편성 등이 집중 추궁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82억원 감액 반영, 이중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9억원, 특성화고생 학비지원 1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3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구입비 지원 5억원, 누리과정 지원 147억원, 무상급식 지원 48억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예산 현황 중에서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지원(12억60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5억6000만원), 저소득층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지원(7억9800만원) 등이 증가됐고 학비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등 모두 82억원이 감액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반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비는 대폭 증액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예결위는 도교육청 2016년 해외연수 사업은 27개 사업 21억원으로 전년 9개 사업 11억원보다 18개 사업 10억원이 증액됐으며 특히 유아교육 선진화 유공 및 전문직 국외연수 등 18개 사업 8억5000만원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서 신규 편성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도교육청의 전액지원 명분은 선진국 혁신학교 운영의 '직접체험'을 위한 불가피론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들도 잘 알아야 되는 사안이고 눈으로 직접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 등의 시선은 딱딱기만 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던 전북교육청이 교육 살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면서 "지원 금액의 많고 적음도 문제지만 공짜로 따라간 삼임 위 의원들도 지탄받아야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민형 기자



17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송하진 도지사와 티타임을 가졌다. 송하진 지사와 안철수 공동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탄소법 국회 통과 최선”

전북 방문서 “전북 현안 해결에 국민의당이 중심 될 것”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는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7일 안철수 상임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법 국회 통과, 새만금사업 조기 완공,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원활한 이전 등 전북의 현안 해결에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탄소분야는 국가가 나서서 추진해야 했지만 지자체가 먼저

나선 보기도문 사례다. 선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도 “19대 국회에서 탄소법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무산되면 20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단계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동조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듯 한 발언도 나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9대 본회의에서 탄소법을 통과시키려고 협상중이다. 여대야소인 19대 국회에서 안되면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탄소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소법 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노동개혁 5법 등을 상정할 경우 탄소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영 기자

日 언론 “한일 양국 위안부재단 논의 진전”

소녀상 철거 문제 협의도... 외교부 “준비위 이달 중 발족 목표”

한일 양국 정부는 17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고 지난해 말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정병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 겸 도교 외무성 청사에서 2시간여 걸쳐 진행된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재단 설립에 앞서 이르

면 이달 중에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6월 중에도 재단을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일본언론은 밝혔다.

또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합의를 쌍방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아

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이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약 107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민간인사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다.

또한, 외교부는 17일 “이달 중 또는 적어도 수주 내에 (위안부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주 기자

변호사개업인사

광주고등법원장을 끝으로 30여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오니 빈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 전북 남원 출생
-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2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2기, 육군법무관
-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군산지원장
- 제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 제주도, 전북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 방극성 올림

- 업무개시: 2016년 5월 9일(월)
- 업무장소: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4 대동빌딩 203호(전주법원 앞)
- 대표전화: 063-276-2500
- 팩스: 063-276-2501
- 개업시간: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영상 뮤지컬공연장으로

내년 5월 '실록을 탐하다' 첫 공연

전주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을 위한 3D 워터스크린 영상기반 한국형 퓨전뮤지컬 사업은 국비 4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6억5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형 아간영상 수상공연이다.

이 사업은 전주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야외특별무대에 해상도 높은 대형 3D 워터스크린을 설치, 빛을 이용한 90분~120분 정도의 스펙타클한 한국형 퓨전뮤지컬 공연으로 내년 5월 개막되는 U-20 FIFA 월드컵에 맞춰 첫 공연에 들어간다.

공모에 선정된 '실록을 탐하다'는 조선시대 혼돈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이들 기관과 단체가 준비한 3D 워터스크린과 인터랙션 영상기반 한국형 퓨전뮤지컬 사업은 국비 4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6억5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형 아간영상 수상공연이다.

이 사업은 전주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야외특별무대에 해상도 높은 대형 3D 워터스크린을 설치, 빛을 이용한 90분~120분 정도의 스펙타클한 한국형 퓨전뮤지컬 공연으로 내년 5월 개막되는 U-20 FIFA 월드컵에 맞춰 첫 공연에 들어간다.

공모에 선정된 '실록을 탐하다'는 조선시대 혼돈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2면 6차산업 인증 우수 경영체 120곳

3면 새누리 비대위-혁신위 출범 무산

4면 항공대대 이전 집행정지신청 기각

전북도내 우수 경영체 17개소가 2016년 도 1분기 6차산업 인증자로 지정됐다.

새누리당이 17일 친박계의 반발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산됐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16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